

화순군, 신선 농산물 일본 수출 개척 한다

미니 파프리카 등 유통 협약 중국·홍콩 등 신규 시장 확대

화순군 미니파프리카가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 일본 현지 판촉행사를 통해 수출 물량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곡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대표 문형운) 등 관계자 12명과 함께 일본 도쿄, 지바를 방문해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의 미니파프리카 일본 현지 판촉 행사에 참석하고 한국농협인터네셔널(법인장 김진호)과 하나마사(대표 토미자와 나츠키)와 수출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순군과 두 회사는 화순군 신선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신선농산물의 제공, 개발과 상품발굴,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일본 시장 진출 및 개척을 위한 협력, 신선농산물 홍보활동 지원을 협약했다.

한국농협인터네셔널은 NH농협무역

의 일본 지사로 1999년 12월에 설립돼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바이어 발굴 및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수 농산물 온라인 판매, 대형마트 직판 또는 계약재배 등으로 일본에 한국의 농산물을 알리고 있다.

하나마사는 53개의 직영점과 별도의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운영해 작년 매출 한화 4286억원을 기록한 회사로 육류 및 육가공 식품 판매 전문점에서 시작해 청과, 식료품, 일상 잡화까지 확대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판매 및 택배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 15일 오찬장에서 토미자와 나츠키 하나마사 대표는 미니파프리카 현장 시식 후 매우 맛있고 신선해 일본 현지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밝힌 후, 즉석에서 500kg를 우선 주문했고 추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도곡파프리카법인은 올해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



구북구 화순군수(오른쪽)가 지난 15일 일본 도쿄, 지바를 방문해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순군 제공

업을 통해 일본 현지에서 한국광장, 베르크 등 8개 매장 온·오프라인 미니파프리카 판촉 행사를 진행 중이다.

문형운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대표는 “현재 일본의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엔화 약세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홍보 행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7톤·5600만 원(예정)의 수

출을, 내년에는 10톤·1억원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미니파프리카의 우수한 상품성이 일본에서도 빛이 났고, 더 나아가 화순군 신선농산물이 중국, 홍콩, 동남아 등 신규 시장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천년의 빛 전국 당구대회 오늘부터 영광스포티움

‘2023 천년의 빛 영광 전국 당구대회’가 20일부터 25일까지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대한당구연맹이 주최하고 전남도당구연맹·영광군당구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3쿠션 단일 종목 대회로 지난 2021년부터 매해 대회를 장식했다.

올해는 남자부 조명우, 김행직, 허정환 선수 등 국내 우수 선수들이 출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

전문선수부는 3쿠션 남녀 개인전과 복식전 등 3종목에 걸쳐 열리며 생활체육선수부는 3쿠션 개인전 및 복식전 등 2종목으로 개최된다. 지난해 대회 남자부는 안지훈(대전)이 결승에서 김행직(전남)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 대회는 한지은(프로 이적)이 2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에 오른 바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선별진료소 올해까지 운영 담양군, 일반의료기관서 진료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전진기지 역할을 한 담양군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오는 31일자로 운영을 종료한다.

군은 최근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면서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506개 선별진료소 운영을 이달 말 중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입원 환자, 보호자와 고위험 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혹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와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PCR 검사 지원은 먹는 치료제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달라지는 방역 조치에 맞춰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장성군(군수 김한중)은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상무대에서 지역상생급식 품평회를 개최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백종원 대표와 함께 장병 입맛 사로잡다

장성군은 지난 15일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상무대 지역상생급식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품평회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상무대 학교장, 급양 관계자, 지역 내 청년 셰프 등이 참석했다.

앞선 9월 ㈜더본코리아와 협약을 맺은 장성군은 지역특화음식 개발을 위해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품평회는 장성군이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함께 추진 중인 ‘상무대 지역상생급식 제

철농산물 활용 메뉴기획 및 개발 연구용역’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장성산 식재료를 활용한 30여 가지 메뉴가 눈길을 끌었다. 새싹삼 누룽지 갈비탕, 차돌 된장찌개, 우삼겹 비빔밥이 식사료로 준비됐으며 양념깻잎, 깻마늘 등 반찬과 장성사다리빵, 아이스홍시 등이 후식으로 제공됐다. 음식 맛이 고르게 좋은 평가를 얻은 가운데, 신선한 장성 식재료를 사용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었다는 시식평이 주를 이뤘다.

장성군은 품평회에서 취합한 의견을 반영해 음식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확정된 레시피는 상무대 급식, 내년 개장 예정인 장성로컬푸드 점단직매장 내 농가 레스토랑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는 물론 상무대와의 상생협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엠지(MZ)세대 장병들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한 음식메뉴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담양군생활개선연합회, 연말총회·환경정화 활동

담양군생활개선연합회(회장 김금남)가 연말 총회와 과제 활동 교육,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19일 담양군생활개선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생활개선회는 올해 활동 결산 보고를 통해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회원배가운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와 과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5개 읍면(최우수 금

성면회, 우수상 대덕면·수북면·장평면회, 장려상 담양읍회)를 시상했으며, 과제 교육으로 파밍하우스의 우리밀과 쌀을 활용한 케이크 만들기 체험활동도 함께했다. 23일부터 열리는 담양메타뮤직 페스티벌 행사장의 쓰레기, 돌부리 등을 제거하는 환경 정화 활동도 추진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부터 이어져 온 담양군생활개선연합회는 1958년 생

활개선구락부로 출발해 60년 넘게 활동을 이어온 농촌 여성단체이며, 건전한 농촌 가정 육성과 농촌 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농촌을 지켜나갈 여성 후계 세대 육성과 지원을 위해 현재 289명의 회원이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금남 회장은 “지역 사회의 훈훈한 정을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학습 과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전남 축산시책 우수기관에 담양군, 우수상 받아

담양군은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는 환경 친화형 축산시책 추진은 물론 사육값 인상과 소값 하락에 따른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축산시책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분야는 축산정책, 동물복지, 축산경영, 축산자원화 등 총 4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담양군은 녹색축산육성자금 추진,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실적, 유기동물 보호 관리,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및 가축 사육 밀도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담양군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애로사항을 반영했다. 자체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가축수분조절제 4억2000만원 △조사료 파종 농가 생산장려금 1억9000만원 △축산 환경 개선 사업 2억7000만원 △우량 암송아지 입식비 1억2000만원 등을 지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내년 지적재조사 주민 설명회 장성군, 20일부터

장성군은 20~22일 ‘찾아가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이다. 토지 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을 통해 국토의 활용 가치를 높인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추진에 앞서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추진 배경, 절차, 기대효과 등을 소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는 △동하면 남산리 황산마을 △삼서면 수해리 화해·하죽마을 △북이면 백암리 용산마을 △북이면 오월리 송산마을 4곳이다. 총 규모는 1500필지 71만 6054㎡에 이른다.

장성군은 주민설명회 이후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장성=유봉현 기자

영광군, 청소년 플리마켓 오픈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6일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 플리마켓’이 200명의 청소년과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창작한 멸종위기동물 엽서, 크리스마스 키링, 수제쿠키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득한 제품 판매가 이뤄졌으며 버스킹 공연, 크리스마스 포토존, 먹거리부스 등도 함께 펼쳐졌다.

청소년 버스킹은 154밴드, Pit a pat 등 청소년 동아리들이 참여한 가운데 밴드, 댄스, 보컬, 기타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재능있고 열정 가득한 청소년이 만든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영광=김도윤 기자